

7.5 출애굽기 23:1-12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1.성도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 어려울 때 우는 소리를 하거나, 힘들 때 위로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2.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3.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4.우리 영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평생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살다, 자기에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주시지 않는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태도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5.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도 못한 채, 마치 자기가 뭔가를 맡겨 놓은 사람처럼 자기 주장을 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적되어야 한다. 6.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이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나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7.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며칠 동안 딸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딸은 신이 나서 음식을 준비하였다. 갈비도 사고, 가오리를 사서 회도 준비하였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8.며칠 뒤, 친정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딸 애가 뭐 맛있는 것 좀 준비했어요? 잘 먹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대답했다 “영 먹을게 없었어. 나는 이가 안 좋아서 두부랑 계란 찜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딱딱한 음식만 준비했더라고,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9.딸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기 아버지는 먹을 게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자기가 인정 받고 싶거나, 뭔가 자기의 삶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순회 찬양단을 하거나, 굳이 대학원에 가거나,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았다. 10.“내가 만족하는 것을 하니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야 하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 대부분은 사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으로, 내 본성에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11.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간 것은 그의 비전도 그의 꿈도 그의 소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이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 12.그러나 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이 된다.

내가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곧 큰 건물을 사고,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다. 13.교회의 행정적 질서를 세우고, 교인들의 마음을 다잡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그러다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연회(annual conference)에 친구와 같이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갔다 왔다. 왕복 2천 마일이었다. 14.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금요 예배는 장로님에게 맡기고 갔고, 나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연회 간 사이에 교인들이 자기 대학생 자녀들이 방학이라 돌아온다고, 우리 교회도 영어예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15.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 말을 누운 채로 아내에게 전달받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영어로 예배를 준비하자면, 토요일에 열 시간 정도는 꿈쩍 없이 컴퓨터에 붙어서 번역하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16.그것도 한국어로 다 준비된 내용을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했던 것이다. “아 하기 싫다”는 마음이 꿈틀거렸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여름 동안 15명 정도의 영어권 청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집회도 하는 등 나름대로 행사도 했다. 17.그런데 8월이 되니 이제 모두들 돌아갈 것을 예상하

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영어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물어보니 한 명도 남을 사람이 없었다. 18.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인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남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영어 예배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9.그런데 그중 한 명이 뜻밖에도, 보스톤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남아서 찬양단 리더가 되었고, 개학 전에 스페인에 갔던 청년이 돌아오면서 힘이 붙었고 9월 달이 되니 4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20.나는 영어권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 한국어권 예배를 또 인도했는데,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반년만에 교회 옆에 있던 작은 학교 건물을 사서 교육관을 만들었다. //21.목회를 하면서 중간 중간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

22.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를 읽게 된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것으로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제 그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쁜 것들로 보이게 된다. /23.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다. 노예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듣게 된다. 24.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원리는 상대에게 상호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애굽기21:24)이며, 이것은 남에게 일부러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25. 같은 장 26-27절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지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라고 함부로 폭력을 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반복, 강조된다. 26.그리고 당시의 약자인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한다 (22:21-22). /그리고 22:23에 하나님은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고 하신다. 27.그러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것이다(24). 하나님은 22:31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본 장의 시작은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1-2).

28.사람은 무리 속에 있을 때, 자기 책임감을 상실한 채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선동에 놀아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폭력성과 악함을 그 안에 같이 묻어 가면서 드러내기도 한다. 때로 우리는 다수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다수라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 역사도 어렵지 않게 보았다. /29.예수님도 이러한 다수의 선동과 악의 속에 말도 안되는 모함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에게 덮여진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30.나는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 쓴 글을 보았는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과소평가했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이득이나 혹은 악의에 의해서 군중심리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셨다. 31.그러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열두명의 정탐꾼이 들어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생긴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나안 정복 불복종이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소리에 선동되어 우는 소리를 하고 원망을 했다. 32.민수기 14:2-4를 보면 자기네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악의나 원망은 그 전염이 대단히 빠르는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감정적이거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기 입으로 한 말처럼 광야에서 죽었다. 33.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수가 잘못된 흐름에 놀아나도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34.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대세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논거로 내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수가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셨다.

35.본문으로 돌아가서, 약한 자라고 송사를 다룰 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며 이것은 약한 것을 돕는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 준다. 이것은 6절에 다시 반복된다. 36. 그리고 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옆드려지면, 그것을 도와주라고 한다. 요새로 바꾸어 말하자면,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길가에서 차가 퍼졌다. 37. 그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통쾌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한다. //38.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지독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그 대상이 짐승과 땅이 되기도 한다. 10절 이하를 보면 여섯 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라고 한다. 39.그렇게 땅도 쉼을 얻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작게 잠정적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심지어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는 것이다. 40.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한다. 41.신명기 25:4에 보면 타작할 때 중노동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다. 소가 땅에 떨어진 것 조금 먹을까 봐 그게 아까워서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42.이것은 누군가가 수고하였으면,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수고를 얻고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거나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43.내가 유학생들을 관찰해 보니, 다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교회에 오거나 혹은 자기

가 이사할 때, 혹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44.그런데 운전해준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차 마일리지 늘어나고, 기름 값 나가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라이드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기름값을 주거나 혹은 커피라고 사서 라이드 해 준 학생에게 주었다. 45.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너무 인색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옆에 남지 않는다. / 46.잠언에 보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한다(11:24). 본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다. 여기에서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정성을 보이는 기간이다. 47.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고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인색함과 좁은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신다. 48.그런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혹하기 쉽고, 심지어 상대를 쥐어 짜기까지 한다. 49.하나님은 본문 9절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상기시키신다. 그런데 사람의 저열함은, 자기가 당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정도로 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50.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기에 보듬어 주고 따뜻하게 대하기 보다는, 자기와 비슷한 상태를 겪는 사람에게 더욱더 가혹하다. 너만 겪었냐는 것이다. 51.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인색함이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각자의 입장과 살아온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인색한 사람으로 서서는 안된다. ///52.그리고 본문 6-8절은 정의로울 것을 요구한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한다. 나는 서로 상대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며 정의의 팻말을 세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53.이렇게 입장이 다르면 똑

같은 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심지어는 “사실”마저도 서로 다르게 전해진다. 어떤 진영에서는 대단히 악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진영에서는 영웅일 수 있다. 54.반대로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 다른 진영에서는 악마화 될 수 있다. 꼭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옳음을 주장한다.

심지어 이제 말을 갓 시작한 3살 아기도 엄마가 자기를 통제한다고 느껴지면 엄마의 결점을 찾아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맞받아 친다. 55.그러니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정의롭기 때문이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정치적 발언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서 만난 사람 모두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56.그러니 감옥에는 죄수가 없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양심을 찌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인 것을 알아야 한다. 57.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어 드리는 태도가 바로 소망 있는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읽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면, 그것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58.본 장 25절 이하를 읽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보상 받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신다. /59.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삶과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즐거운 성도로 새겨지기를 축복한다.

바라옵기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가운데,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기쁘게 통과하는 구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